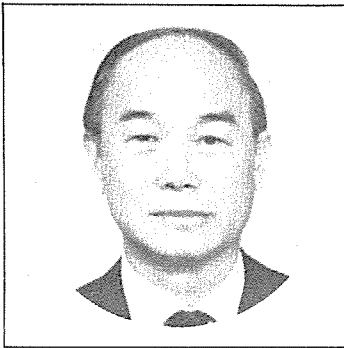


# 科學技術투자규모 획기적 확대와

- 1990년이 科學立國의 꽃을 할짝



姜 英 勳 〈國務總理〉

오늘 庚午年 새해를 맞이하여 우리나라 科學技術發展의 主役이신 여러분들과 新年人事를 나누게 된 것을 無限한 榮光으로 생각합니다.

우리의 目標인 2000년대 太平洋時代의 科學技術立國 실현을 준비해야 할 뜻깊은 1990년대의 개막을 맞아, 먼저 여러분 모두 하시고자 하는 일이 뜻대로 이루어지고 여러분 家庭에도 건강과 행복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돌이켜 보면, 第6共和國 출범 이후 지난 2년간은 우리 民族에게 있어 先進民主福祉國家를 건설하고자 하는 國民的 열망이 집결된 시기였다고 생각합니다.

그 가운데서도 특히, 우리 科學技術界에서는 科學立國의 실현을 통해 우리나라를 先進國대열에 진입시키고 太平洋時代 主役國家의 一員으로서의 위상을 확립하고자 하는 意志가 확고하게 자리잡은 시기였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인식 아래 우리 科學技術界는

그동안 격동하는 政治·社會 분위기에 휩쓸리지 않고 科學韓國의 미래를 내다보면서 研究開發과 人才養成에 매진하였으며, 그 결과 지난 몇해 동안 우리나라 科學技術의 飛躍의인 발전을 이룩하고 이를 바탕으로 우리 經濟의 成長底力を 굳건히 다져 왔다고 하겠습니다.

이러한 여러분의 노력을 뒷받침하기 위해 政府는 지난해 〈基礎科學研究振興法〉을 제정하고 〈科學技術諮問會議〉를 설치·운영하였습니다만, 지금까지 거둔 무엇보다도 큰 成果는 우리나라가 國際競爭 속에서 살아가기 위해서는 科學技術發展이 절대 필요하다는 國民的 공감대가 널리 확산된 사실이라 할 것입니다.

1990년대에 계속되는 民主化過程에서 가장 중요한 合理精神의 함양을 위해서도 科學技術發展과 과학하는 마음을 무시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지금까지 기울인 많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우리나라의 科學技術水準은 先進國에 비하면 큰 隔差를 갖고 있다는 사실을 부인할 수 없으며, 앞으로 政府와 民間企業 그리고 科學技術人들이 합심하여 더욱 분발하여야

# 基礎科學 研究지원지책 강구할터”

피우는 한해가 되도록 합심 노력해야

할 필요성은 한층 더 높아 가고 있다고 하였습니다.

특히 날로 深化되는 先進國들의 技術 保護主義 경향에 비추어 볼 때, 이제부터는 우리의 獨自의인 技術開發 없이는 과거와 같은 성장을 지속하기가 대단히 어렵게 되어가고 있습니다.

따라서 政府는 科學技術革新만이 우리의 살길이며, 2000년대 先進民主福社國家를 이룩하는 가장 중요한 필요조건이라는 확고한 인식 아래 새해부터 다음과 같은 科學技術振興施策을 적극 추진하고자 합니다.

무엇보다도 먼저, 科學技術에 대한 투자를 획기적으로 확대시켜 현재 GNP의 2.6%에 달하는 投資規模를 2001년까지는 5%선까지 끌어올릴 계획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投資規模를 늘린다 하더라도 우리나라의 研究開發資源은 全世界의 1% 수준에 불과하므로, 이 같은 한계를 극복하면서 先進國의 앞선 科學技術知識을 흡수하기 위해 미국·일본·유럽 등과의 共同研究開發事業도 적극 추진해 나가도록 할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모든 尖端科學技術

의 원천인 基礎科學研究를 집중지원하기 위하여 방대한 잠재력을 가지고 있는 全國의 大學을 共同研究에 참여케 함으로써 基礎科學의 발전 뿐만 아니라 그 결과를 활용하는 生産技術革新을 가속화해 나갈 것입니다.

특히 반도체, 소프트웨어, 精密化學 등 상대적으로 경쟁가능성이 있는 尖端技術分野를 國策的으로 육성해 나가고자 합니다.

또한 과학기술을 통한 國民福祉欲求 충족을 위하여 國民들의 풍요로운 삶에 기여할 수 있는 生活福祉技術의 개발에도 역점을 두도록 할 것입니다.

全國의 科學技術界 指導者 여러분.

새해들어 우리나라 經濟가 당면한 여러가지 難問題를 경시할 수는 없습니다만, 그럴수록 萬難을 무릅쓰고 先進民主福社國家 건설의 기반이 될 科學技術水準向上을 위한 우리의 노력에 한時라도 발걸음을 멈출 수는 결코 없는 일입니다.

우리 모두 1990년 한해가 科學立國의 꽃을 활짝 피우는 해가 되도록 노력할 것을 다짐하면서, 여러분 모두의 健勝을 다시 한번 기원하는 바입니다.